

amagram

Success Partner for a Better Life

Anti-aging Solution

Stay Forever Young 퍼져라, 숨어있는 주름 하나까지!

Put Health on your Table 평범한 밥상의 건강한 변화

Stretching for your Health 관절 건강, 근력 스트레칭으로 챙기자

2008 회계연도 'The Year of Pride'

Special Theme

안티에이징 습관, 이것이 포인트!

별책부록 : 추석선물세트 안내서_아마그램용



9 SEPTEMBER / 2007

Contents



2007 AMAGRAM_No.188
S E P T E M B E R



COVER STORY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열린 새로운 회계연도! 풍성한 가을, 따뜻한 한가위가 선사하는 한해의 결실들을 만끽하며 사업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다짐들도 하나하나 되새겨 보세요. 힘찬 시작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한다면 보다 완벽하고 후회 없는 희망찬 한해를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message	Recognition	05
home & durables	겨울 사랑 이야기	09
special theme	안티 에이징 습관, 이것이 포인트!	10

products guide

anti-aging	퍼저라, 숨어있는 주름 하나까지!	16
solution	평범한 밥상의 건강한 변화	18
	뉴트리라이트 글루코사민	21
	관절 건강, 근력 스트레칭으로 챙기자	22
event	샘 렌보그 박사와 함께 하는 뉴트리라이트 씨엘에이 CLA 출시 세미나	24
new arrival	뉴트리라이트 씨엘에이 CLA	25
nutrilite report	<제9편 뉴트리라이트의 글로벌 프로젝트> 팀 뉴트리라이트 스폰서링 프로그램	26
beauty	이슬 맺힌 촉촉한 가을 피부	28
	TIMELESS BEAUTY FOR FALL - 아티스트리 2007 Fall Collection	30
	트리타지 1주년 기념 캠페인	32

business guide

special focus	2008 회계연도 The Year of Pride	34
event	2008 리더십 세미나 샷포로	36
	암웨이 창립 50주년 기념 추가여행 프로그램 안내	38



Steve Van Andel_Chairman
Doug DeVos_President

Recognition

기회를 성과로 바꾸는 인정과 보상

매년 가을이면 우리는 그동안 이룬 것들을 돌아보며 “축하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고 신규 편을 성취할 때 여러분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해 쏟은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곧 파트너들의 성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없이 여러분만의 힘으로 그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했고 서로 도왔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 노력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성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서로가 일구어낸 성과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웨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성공의 진정한 척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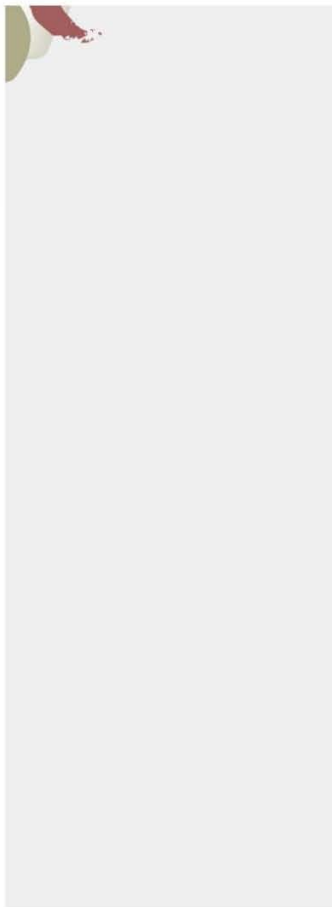
Every fall, we make sure we take the time to look at all you have accomplished and say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We can’t say that enough.

When you accomplish your goals and reach new levels, we’re here to reward you. And to recognize the effort you put forth. But it goes further than that. When you succeed, others are succeeding with you. Without them you wouldn’t be able to achieve what you’ve achieved. So they need recognition also. From you, from us. Everyone is working together and has helped each other along the way.

That’s how this opportunity works. Recognizing each others accomplishments. Working together. It’s an important part of this business. And a real measure of our success.

스티브 밴 앤델 / 암웨이 회장

덕 디보스 / 암웨이·렉스타 총괄 사장



2007 AMAGRAM_No.188
S E P T E M B E R

Contents

education advice	현명한 부모되기 가이드(육아 아이 사회성 길러 주기)	42
tax information	세테크의 눈을 키워라(종합 양도세, 어떤 경우 절약할 수 있을까)	44
event	2007 리더십 세미나 산야	46
	2007 New Diamond Seminar, Emerald Forum, New Diamond Seminar	48
colorful interview	Same Vision, Different Style-IBO 인터뷰	49
rules of conduct	IBO 사업 보호 활성화를 위한 윤리강령 강화 정책 시행	58

news gathering

product news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 소개	50
amway news	암웨이의 생생한 최신 소식들	56
ibo plaza news	전국 각 IBO 프라자에서 진행된 이벤트와 다양한 소식들	57

new achievements

interview	다이아몬드 (7월 1일부)	59
recognition	에메랄드/사파이어/루비/플래티늄/골드 프로듀서/실버 프로듀서 (7월 1일부)	61
schedule	9월 교육일정, ABC 일정표	67

IBO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마그램

아마그램에 대한 IBO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마그램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아마그램을 본 후 느낀 소감 등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접속 경로 : ABN→사이버북→아마그램 페이지의 '나의 의견 작성하기' 버튼 클릭

EDITORIAL 발행·편집인 CEO & Publisher 박세준 _ 편집책임 Managing Director 이미혜 _ 편집 Editor-in-Chief 박해영 _ Senior Editor 박해원 _ 취재 News gathering (주)위컴에드 ART & GRAPHIC 디자인 Design (주)위컴에드 _ 사진 Photograph Bs Studio _ 일러스트 Illust 임영택, 박원철 STYLE 스타일 Food 노다(noda+), Styling 형남(noda+), Styling 이충신 PRINT & OUTPUT 사진제판 Scan & Photo Engraving 영성애드 _ 인쇄 Print 대원문화사, 대영인쇄사 _ 등록번호 서울 라-05179 _ 공급처 한국암웨이주식회사·서울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성유센터빌딩 (대표전화 : 1588-0080) _ 발행처 (주)위컴에드 _ 발행일 매월 25일 발행

※ 본 잡지에 실린 기사 및 일러스트, 사진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아마그램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잡지 살전요강을 준수합니다.

IBO 전용사이트 _ www.abnkorea.co.kr 퍼블릭사이트 _ www.amwaykorea.co.kr

대한민국직접판매협회
KOSA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
한국암웨이는 한국직접판매협회의 회원사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부드러운 실천의 조화

얼굴 가득 머금은 부드러운 미소와 달리 오정옥 다이아몬드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원지 모를 정확함과 확신이 묻어 나왔다. “암웨이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실천을 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암웨이사업은 ‘휴먼사업’인 만큼 물질적인 이익만을 쫓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말하는 오정옥 다이아몬드. “처음부터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기에 이 사업을 접했을 때 비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만, 이왕 뛰어든 일이라면 인생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암웨이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 처음에는 반대를 하던 남편도 서서히 바뀌어 지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고, 더구나 밝고 상냥한 성격 덕분인지 그의 주변에는 믿고 따르는 파트너들도 유난히 많아 보였다.

이쯤이면 안일한 마음을 먹음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며 눈을 빛냈다. “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팀웍이 중요한 만큼 암웨이사업이 주는 모든 가치를 파트너들과 다같이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고, 더 큰 의욕이 생기는 거겠죠.” 처음부터 사업의 비전을 정확히 꿰뚫고 시작해서인지 성장을 위한 원칙 역시 뚜렷해 보였다. 특히, 독서에 집중한다는 것. “사업을 하는 데에도, 살림을 하는 데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교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아무리 바빠도 전문서적들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파트너들과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온 것이기에 그의 성공은 더욱 값져 보였다. “원칙을 중시하라는 충고를 해주신 스폰서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저 역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암웨이사업은 독립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잘 갖춰진 환경을 100배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나가십시오.”

오정옥 | 다이아몬드 (2007년 7월 1일부)





조덕제 & 유민정 | 다이아몬드 (2007년 7월 1일부)



나눌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 집니다

조덕제 & 유민정 다이아몬드는 핀 성취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을 모아 '자유로워졌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물론, 성취감이 가장 큼니다. 하지만 성취감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전보다 한결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속으로 먼저 한계를 만들고 움츠려 들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여러 번의 좌절이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다이아몬드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후 남몰래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다고, 하지만 조덕제 & 유민정 다이아몬드는 먼저 성취한 이들을 부러워하고만 있지 않았다. 대신 스폰서와 파트너를 빛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결국 올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다. "지나고 보니 7년이 한 순간인 듯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첫 목표였던 SP, 그 다음의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까지, 하지만 힘들었던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걸 보니 암웨이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행복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처음 사업을 소개받았을 때에는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암웨이사업을 선택할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지만 직장동료의 계속되는 권유에 호기심이 생긴 조덕제 다이아몬드는 결국 직접 책을 찾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의 확실한 비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동안 반대를 하던 유민정 다이아몬드도 암웨이사업을 공부하며 점점 변화해 가는 남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결국 사업을 받아들일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고, "계속 반대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그래서 배우자 반대로 꿈을 접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제 반대에도 계속 추진해온 남편에게 정말로 감사하고요." 암웨이사업을 통해 부부관계까지 더 돈독해졌다는 조덕제 & 유민정 다이아몬드, 이들의 다음 목표는 단순한 핀 성취가 아니라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더 많은 것을 베풀었을 때 저희들 마음이 더 뿌듯해지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음 목표 역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함께 누릴수록, 함께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는 사업이니까요." ㉓

New Achievements

EMERALD



2007년 7월 1일부



윤미연 전북 전주시 / 한국암웨이 IBO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선택할 만큼 이 사업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 없이, 힘든 줄도 모르고 끈기 있게 진행할 수 있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율공께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의 모습에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사업은 원칙을 바르게 따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는 사업입니다. 변함 없이 믿고 격려해 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염려해주시는 가족들에게 암웨이사업의 멋진 비전을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유경 서울 성북구 / 한국암웨이 IBO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핀이라는 생각에 핀 성취의 남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메랄드 핀은 자신감을 주는 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큰 자신감으로 더 원대한 비전들을 성취해가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는 느끼지 못했던 혜택을 암웨이사업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재미있고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처음의 비전을 간직하고 지키다 보니 에메랄드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칭찬으로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도적인 사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종옥 & 박용기 경북 영천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는 과정은 만만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배우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핀 성취를 계기로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그렇듯 암웨이사업 역시 간절함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배우고, 내면을 가꾸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고생하고 계신 파트너분들과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다독여 주시는 스폰서님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정미선 & 심원규 대전 대덕구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남편의 집을 덜어 주려고 시작했던 사업을 통해 평범했던 저희 부부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사랑, 믿음과 용기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긍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부모에게서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암웨이사업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꿈의 크기를 키워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께 감사 드리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RECOGNITION

EMERALD



2007년 7월 1일부



최명순 & 임홍준 서울 광진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불가능해 보이던 꿈들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암웨이사업의 비전과 가족의 핑크빛 미래를 상상합니다.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미팅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표의식과 인내, 절대긍정의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오늘의 값진 선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이끌어 주신 고마우신 스폰서분들, 이 사업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이 제2의 가족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회를 찾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품형 인간'이 아닌 '예술형 인간'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변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SAPPHIRE



2007년 7월 1일부



강유선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BO



김이애 & 문병찬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신형순 & 김광영
서울 강남구
건설업 & 한국암웨이 BO



윤현수 & 김안수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미자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임미순 & 배개성
경남 진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정주연
서울 성동구
한국암웨이 BO



정효심 & 이광진
광주 서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SAPPHIRE

김현옥 & 박수익 경기 수원시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민기 & 권수미
서울 광진구
한국암웨이 IBO



김성기 & 임재신
경남 창원시
화가 & 미술학원운영



김형욱 & 정형호
인천 남구
간호사 & 자영업



박민주
서울 동작구
한국암웨이 IBO



박주혜 & 이동산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IBO & 금융업



백은덕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IBO



유지은
강원 원주시
한국암웨이 IBO



이명숙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IBO



이민우 & 노자혜
서울 서초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이상보 & 김형희
경기 화성시
에이전트 & 프리랜서



정미경 & 박재곤
울산 동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정유미
경남 아산시
한국암웨이 IBO



표형엽 & 홍선정
충남 당진군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황미진 & 박종운
부산 해운대구
음악학원운영 & 자산관리사



김경훈 & 김임숙
대구 남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문영신
전북 진주시
한국암웨이 IBO

2007년 6월 1일부



임은주 & 김명수
서울 동작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장성애 & 박윤식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강연완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IBO



김현주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IBO



권한님 & 장상익
서울 중랑구
회사원 & 자영업



김명숙
전남 순천시
한국암웨이 IBO



김성태 & 김금례
경기 이천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IBO



김수진
울산 북구
한국암웨이 IBO



김명미
서울 노원구
프리랜서



김은주 & 이형희
부산 수영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김정화 & 이정진
대전 대덕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김종립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IBO



김지연
대구 달서구
캘러리운영



김치한 & 김성효
부산 수영구
자영업



김현이 & 정관실
전남 구례군
한국암웨이 IBO & 조경업



김희순 & 황 인
인천 남동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백명주 & 김병hil
부산 시하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백영실 & 성덕근
제주 제주시
자영업



박인욱 & 김금순
광주 북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박진화 & 정주곤
울산 광진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박혜숙 & 정관수
서울 광진구
회사원 & 사업



서병관 & 정두례
전북 진주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IBO



송진경
경기 수원시
한국암웨이 IBO



신정은 & 김진오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안인경 & 조용상
경기 의왕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안효찬 & 이미경
경기 고양시
광고대행업 & 한국암웨이 IBO



유지영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IBO



윤명자 & 박성훈
부산 부산진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이기욱 & 최병돈
경기 시흥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이은주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IBO



이현연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IBO



이효경 & 김한석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IBO & 엔지니어



임아영 & 최은석
경남 함안군
한국암웨이 BO



임호연 & 정형석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 회원



장영순 & 백성호
대구 수성구
빙문교사 & 인터넷어



장영아 & 하기호
서울 서초구
일어강사 & 회사원



정명화 & 김정기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회원



정봉금 & 신동해
경남 양산시
POP강사 & 회사원



정연홍 & 이은규
충남 논산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정평기 & 김오순
경기 의왕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정예인
대전 대덕구
한국암웨이 BO



조귀숙 & 배성오
경기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추낙분 & 안준석
인천 부평구
한국암웨이 BO & 회원



차현정 & 유명경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천미진 & 우경수
경남 밀양시
한국암웨이 BO & 유통업



최명신
서울 성북구
회사원



최훈수 & 김소현
경기 용인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피미정
대구 남구
자영업



한명혜
대구 서구
회사원



한현천
경남 진해시
자영업



히가시모리마사에
경기 고양시
자영업

PLATINUM

고영애 서울 관악구 / 한국암웨이 BO
김경옥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김보경 부산 금정구 / 한국암웨이 BO
김인숙 강원 원주시 / 한국암웨이 BO
김종원 인천 부평구 / 한국암웨이 BO

민정원 & 박상호 서울 서초구 / 약사 & 자영업
박경희 서울 서초구 / 한국암웨이 BO
신정원 서울 용산구 / 한국암웨이 BO
양혜원 서울 성동구 / 한국암웨이 BO
이옥순 & 박익규 경기 안성시 / 한국암웨이 BO & 회원

이은정 경기 수원시 / 한국암웨이 BO
이진숙 인천 서구 / 프리랜서
이현오 서울 동대문구 / 무역업
하지현 울산 남구 / 회원

RECOGNITION

GOLD PRODUCER



2007년 7월 1일부

강수미 & 이주학	김영찬 & 임복미	노 실	박은주 & 임옥동	심진희	이경숙	이현재	전홍윤 & 권경화	최신자
강인순	김은진	민예홍	박인정 & 이성진	안현희 & 최영림	이경숙	이현정	정지애	홍정애
강효석	김종한 & 유지현	박기홍	박재신	양미선	이상달 & 권경희	이혜란	정지영 & 이두기	
권경애	김태수 & 김소영	박순진 & 빙순영	송희정 & 심재웅	양미숙 & 임진환	이영민 & 정용남	장성은 & 신동근	정현아	
김미랑	김현숙	박영란	신관재 & 김경희	오복순 & 김도환	이재석 & 김소용	전민우	조선미 & 김용호	
김미향	김희선	박은정 & 김철수	신화성 & 남창모	윤소영	이현숙 & 손정우	전연숙	최숙영	

SILVER PRODUCER



2007년 7월 1일부

강계남	김숙필	김정애 & 정원석	문지숙 & 최민호	송정숙	이선례	전정미	조원봉 & 박미자	허윤희
강석원 & 김선미	김순옥 & 김재덕	김정은 & 이종구	민영길	엄윤섭	이승영	전희숙	조춘옥	허정희
강종희	김시자 & 박철희	김택선	박대식 & 양경태	윤영희 & 유성원	이영규	정근식	주경희	홍상주
김경남	김영훈 & 김정은	김필녀	박덕기 & 김명숙	윤하운	이영미	정지현	차재권	홍은주 & 이영수
김대영	김외생	김현아 & 김대중	박선옥	윤현주	이윤희	정현숙 & 채윤철	차정준	
김동진	김용범	김현정 & 문대일	박정선	이경숙	이주영 & 김영진	정화승 & 김경연	채선에 & 이동희	2007년 6월 1일부
김래숙	김은희	김형숙	박준애	이경숙	이창수 & 고은정	조명자	최명선	문인숙
김미옥	김의정	대길요 & 성철중	박지현	이교환 & 변주영	이한진 & 김대현	조순영	최종민 & 김미선	전복덕
김미정 & 안성훈	김인순	맹재길	서성미	아나영	임성애	조영주 & 황종원	한기만	정재식
김민정	김정녀	문상혜	손정태	이상계	장혜윤	조영철	허 규 & 정임정	

※ 레코그나선에 실릴 사진은 우편(서울시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8층 한국압웨이 아마크렘 담당자 앞)과 이메일(amagram@amwaykorea.co.kr)을 통해 접수합니다.